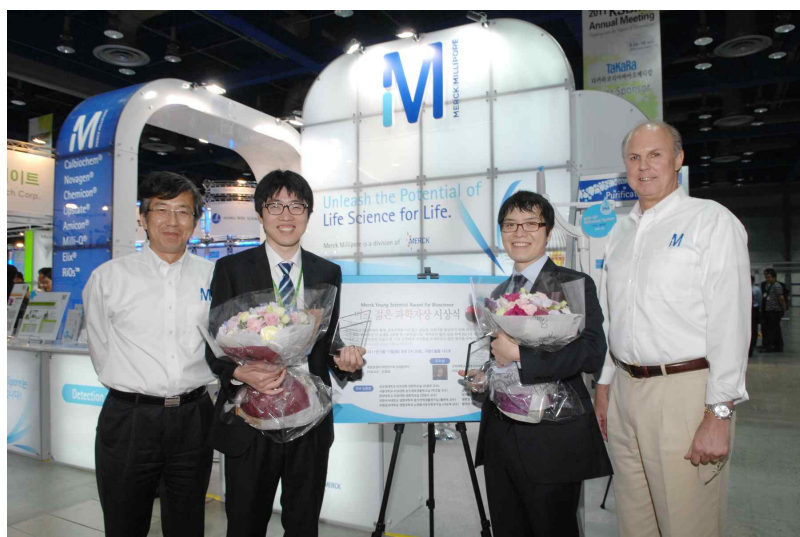


Merck 젊은 과학자상 2명 수상

독일 Merck의 한국법인인 한국머크(대표 유르겐 쾨닉)는 <생명과학 연구자를 위한 머크 젊은 과학자상>의 3회 최우수상 수상자로 국립암센터 김석준 연구원, 우수상에는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석·박사 통합과정의 이병길 연구원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5월17일 오후 KOEX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한 생화학분자생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가졌다.

최우수상을 받은 연구는 여러 암종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자로 알려져 있는 galectin-3가 GSK-3 β 의 결합을 통해 GSK-3 β 의 인산화에 영향을 미치고, 인산화된 GSK-3 β 는 β -catenin의 핵 안으로 유입이 증가해 fascin-1(actin과 결합하여 단단하게 꼬아주는 역할을 하는 cytoskeletal 단백질)의 발현을 증가시켜 위암세포의 이동과 침윤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증명했다.



<서병수 머크 밀리포아 사업부 부서장, 김석준 국립암센터 연구원(최우수상 수상), 이병길 고려대 연구원(우수상 수상), 유르겐 쾨닉 한국머크 대표>

우수상을 받은 연구는 세균 내 단백질 분해를 담당하는 단백질 ClpP와 이를 타겟으로 하는 항생제후보물질 ADEP의 활성화기전을 제시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논문에서 규명한 ClpP와 ADEP 복합체의 고해상도 구조정보는 앞으로의 ADEP 계열의 항생제 개발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젊고 유능한 과학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젊은 과학자상>은 2007년 미국지사를 시작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머크가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세계 곳곳에서 이미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9년부터 대한 생화학분자생물학회와 한국머크가 공동 운영 및 지원한다.

<화학저널 2011/05/17>